

Economy Brief

이번에도 신뢰를 주지 못한 워시 의장. 국채금리 불안 지속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9월 FOMC회의 결과, 만장일치 결정과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짐

9월 FOMC회의 결과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워시 의장이 금융시장에 강한 정책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임

국채금리 안정과 관련하여 소방수로서의 워시 의장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유가 추이에 국채시장 등 금융시장이 더욱 민감해질 것임

이란 리스크가 만장일치 금리인상을 이끌었다

이번(=금리동결)은 없었다. 9월 FOMC회의 결정은 금융시장이 예상한 수준에 거의 부합했다. 9월 금리인상 여부와 더불어 금융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9월 점도표 역시 연내 최소 1차례 추가 금리인상과 내년 금리동결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 금융시장이 예상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점도표와 더불어 PCE 물가 전망치는 우려보다는 큰 폭의 상향 조정은 없었다. 올해 PCE 물가상승률은 기존 3.6%에서 3.7%로 0.1%p 상향 조정에 그쳤고 내년 PCE 물가상승률은 6월 전망치와 동일한 2.3%로 전망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물가 전망치는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전망은 예상보다는 강했다.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을 6월 전망치보다 각각 0.1%p 높은 2.3%와 2.4%로 상향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치를 내 놓았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 전망치도 모두 4.1%로 하향 조정했다. 6월 전망치 대비 각각 0.2%p 하향 조정된 것이다.

성장과 고용은 예상보다 더 강해진 반면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에서 미 연준은 금리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더욱이 9월 FOMC 회의 성명서와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내릴 수 있다.

한편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 중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 및 국채금리 상승 요인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다. 즉, 이란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을 예들려 설명했다는 점이다. 워시 의장이 이전 두 차례 FOMC회의 당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것과 달리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화된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워시 의장은 지정학적 이슈를 거론하며 "전 세계 분쟁지역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무엇이 가장 가능성이 작은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를 거부하고 금리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인 이란발 유가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포장해서 얘기한 것이다.

금리인상 이유는 분명했지만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처방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금융시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워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이기고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미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한 부분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생각이다. 워시 의장 기자회견 발언을 종합해볼 때 워시 의장의 통화정책 신뢰도에 대해 큰 점수를 주기 어렵다. 본인은 1~2개의 데이터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워시 의장이 금리인상에 동의한 것은 최근 발표된 8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결정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금리인상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원칙적인 인플레이션 안정의지만을 밝혔을 뿐이다. 향후 인플레이션 안정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에 큰 신뢰를 주기에는 미흡했다. 물론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미 연준 역할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시 의장 발언은 금융시장에 큰 신뢰를 주기에 부족했다.

더욱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국채금리 안정과 관련된 대책을 제시 혹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채금리 상승 원인으로는 견조한 경기, 하이퍼스케일러 자금수요 확대 및 지정학적 리스크 3가지를 지적했다. 국채금리 상승의 이유는 정확히 제시했지만 국채금리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시표시를 내 놓지 않았다. 이유는 잘 알고 있지만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이번 9월 FOMC회의 결과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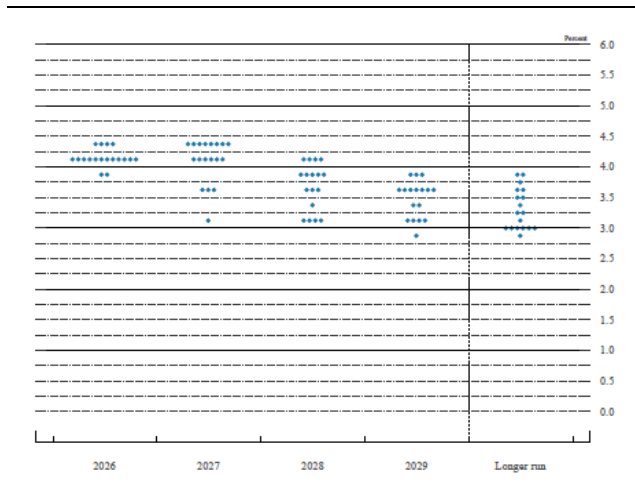
요약하면 9월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워시 의장의 애매한 태도 지속은 통화정책에 대한 큰 신뢰를 이번에도 금융시장에 주지 못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방수로서의 워시 의장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측면에서 유가 추이에 국채시장 등 금융시장이 더욱 민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1. 9월 미 연준 수정 경제전망: 올해 GDP 성장률과 물가전망치를 동반 상향 조정. 단 27년 물가전망치를 기준 전망치 유지

	2026	2027	2028	2029	장기
GDP 성장률	2.3	2.4	2.2	2.1	2.0
26년 6월 전망	2.2	2.3	2.2	-	2.0
26년 3월 전망	2.4	2.3	2.1	-	2.0
실업률	4.1	4.1	4.1	4.1	4.2
26년 6월 전망	4.3	4.3	4.2	-	4.2
26년 3월 전망	4.4	4.3	4.2	-	4.2
PCE 물가	3.7	2.3	2.1	2.0	2.0
26년 6월 전망	3.6	2.3	2.0	-	2.0
26년 3월 전망	2.7	2.2	2.0	-	2.0
코어 PCE 물가	3.4	2.5	2.2	2	-
26년 6월 전망	3.3	2.5	2.1	-	-
26년 3월 전망	2.7	2.2	2.0	-	-
연방기금금리	4.1	4.1	3.9	3.6	3.2
26년 6월 전망	3.8	3.6	3.4	-	3.1
26년 3월 전망	3.4	3.1	3.1	-	3.1

자료: FRB,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매파적으로 변화된 9월 미 연준 점도표: 올해 1~2차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 놓음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